

展示會

자연보호사진전 개최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주최—

지난 11월6일부터 15일 까지 교보문고 이벤트홀에서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주최로 날로 자연환경오염실태가 심각해져 가는 이때에 아름다운 우리강산의 자연자원을 사진에 담아 전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연의 소중한과 오염함을 일깨워 주기위한 「자연보호사진전」이 열렸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나라 낙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귀중한 자연자원등 70여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자연자원사진 및 회귀동·식물사진을 소개하는 외에 홍보용 책자 「자연보호의 길」을 배부했다.

제6회 한국조경작품전

지난 9월22일부터 30일까지 경북공지하철역 전시장에서 한국조경학회(회장 孫昌求 東國大교수)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후원한 제6회 한국조경작품전이 열렸다.

이번 작품전에는 「Paradise Honeymoon House 조경계획」(주·서인 환경)등 7개 창조작품과 「아리수 흐르는 또하나의 공간으로」(경희대)등 대학생작품 39점이 전시되어 일반인들에게 造景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조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조유진金屬工藝展

조유진여류공예가(弘大美術 금속공예학과 강사·서울産業大 금속공예학과 강사)의 금속공예전이 11월6일~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現代화랑(현대백화점5층)에서 성료.

新造形會 B35—'89招待展

新造形會(회장:文胎甲)가 主催하고 韓國文藝振興院이 後援한 B35-'89招待展이 지난 10月6일부터 10月11일까지 동송동 韓國文藝振興院 美術會館에서 열렸다. 87년에 創立된 新造形會는 35세 미만의 신진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된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등 각 부문에서 어려운 여건으로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역량있는 작품들을 선정하여 매년 전시회를 갖는다.

세계희귀박물관, 안나푸르나등정 사진展

매일신문사가 지난 11月5일~21일까지 대구 중구 대봉동 청구모델하우스에서 주최한 세계희귀 박물관 및 안나푸르나 등정 르포사진과 식량, 장비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仁川—天津 直航카페리號 來年5月부터 10日간격 運航기로 承認

내년5월부터 半世紀만에 우리나라와 中國간의 定期카페리의 直通航路가 開設된다.

최근 알려진바 서울의 暘進交易(주) (대표이사 회장 朴在斗)의 자회사 양진교역유한공사(홍콩소재)와 中國天津直轄市소재 화도실업유한공사가 45대55의 비율로 출자하여 設立한 양화국제해운공사(홍콩所在)는 仁川—天津간 定期카페리航路개설에 합의하고 5천톤급의 카페리2척이 10일에 한번씩 운항토록 한국업자로서는 최초로 中國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11월14일 정식으로 쌍방대표간에 계약을 체결했다 한다. 이로써 중국거주2백만동포의 모국방문, 관광객, 기타여행자가 제 3 국을 경유하였

던 시간적, 경제적 폐단이 불식되고 문화, 예술, 경제, 과학등 각분야의 교류가 촉진될 것이며 내년 9월의 北京아시안게임을 앞둔만치 양국간의 민간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알려진바 仁川이 서울의 關門인것 처럼 天津은 北京의 관문인데 仁川직할시와 天津직할시를 다같이 미국의 피라텔피아市와 姉妹결연이된 도시라는 점도 흥미있는일.

양진교역은 태평양시대에 중국대륙과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축을 이룰것을 내다보고 중국의 현대화 개방화에 기여하고자 국교가 없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이념을 초월한 6년여에 걸친 각고끝에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12월초순, 양진교역 본사는 文貞豪부회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홍콩을 방문하여 다가올 운항실시에 앞선 제반계획을 검토한것으로 알려진다.